

입춘인데... 수주절벽 건설시장 한파 여전

지난해 하반기 물량 6,294억 수주
2011년 이후 최저... 체감경기 바닥
업계 “도로·철도사업 지원 시급”

주요경제지표	
주가	종합지수 2,073.16P(+2.15P) ↑
코스닥	지수 609.21P(-3.83P) ↓
환율	1달러 1,147.6원(+0.8원) ↑
금리	3년 만기회사채 2.15%P(+0.01P) ↑

건설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건설수주 절벽에 이어 체감경기까지 낮아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올해 도내 건설시장의 수주난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대형공사 물량이 최근 2~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향후 예정된 SOC사업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주금액은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6,294억9,900만원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5.9포인트 떨어진 74.7을 기록했다.

2015년 1월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연초 계절적 영향에 따른 비수기와 함께 그동안 건설경기 회복세를 주도한 주택·토지부문의 시장 침체로 건설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 발주 급감으로 주택공사지수는 전월보다 19.7포인트 하락한 75.4에 그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데다 주택 부문 역시 인허가·착공실적 증가로 올해 공사물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현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도로·철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